장흥,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 물꼬

문화·경제·생물의약 산업 교류
달랏시에 군 농특산물관 개관
5년간 100만달러 규모 협약도

장흥군은 최근 베트남 달랏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베트남 달랏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농수산물 수출에 물꼬를 텄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 군수는 최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를 방문해 양 지역 간의 교류를 본격화 했다.

장흥군과 달랏시는 농·수·축·임산물의 수출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경제·예술 등의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달랏시에는 '장흥군 농특산물관'을 개관해 무산김, 표고버섯, 미역, 화장품을 전시 판매하고 통합의학, 생물의약 산업 등 지역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11월 달랏시에 친환경 파래김, 도시락 김, 자반 볶음 등 8개 가공식품 2톤(3,000만원) 규모의 물량을 첫 수출했다.

올해 3월에는 3,000만원 규모의 2차 수출을 마치고, 이달 22일 비슷한 규모의 3차 수출을 앞두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수출협약을 통해 5년 간 1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농특산물을 베트남 달랏시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달랏 야시장 등에서 현지인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산 김을 이용한 주먹밥 시식과 장흥 특산품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장흥군과 달랏시의 인연은 지난해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서 시작됐다.

딴 티 뷔 로안 달랏시 부시장 일행이 통합의학박람회에 방문하고, 제9회 달랏 꽃축제에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가 답방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열었다.

양측 대표단은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베트남 달랏시는 호찌민시에서 약 30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인구 30만명, 면적 622.4㎢의 지역으로 첨단 농업, 생명공학과 핵물리학 분야의 과학 연구 지역, 관광 특구로 명성이 높다. 연중 온화한 날씨로 난초, 장미, 커피, 야채와 과일의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세계화는 지방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다각적인 교류 확대로 농수산물 수출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영광, 지속 가능 인구시책 발굴

인구감소 대응 용역 보고회
생활인구 확대·소득원 개발

영광군은 16일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 주요내용으로 '늘품 플랫폼으로 재도약하는 GREAT 영광'이라는 비전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자원 활용 소득원 개발, 미래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전략 목표를 통해 18개 사업이 제시됐다.

제시된 주요 사업으로는 ▲불갑 관광지구 복합 휴식공간 조성 ▲영광군 지원 주거 지원 ▲청년 떡 스타트업 지원 및 플랫폼 조성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평생학습관 조성 ▲영광스러운 청년 커뮤니티 조성 등이다.

강종만 군수는 "인구 감소는 영광의 미래 잠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화, 지역 소멸의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중장기 인구 정책 과제 발굴로 정주인구에게는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지역 자원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동시에 생활인구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최종보고회의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에 대해 14일 간의 군민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 수립을 완료해 5월 말까지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담양,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50인 이상…오는 25일까지 접수
근로자 50만·기업 최대 1천만원

담양군이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창출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 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업이며, 2023년 신규 채용과 지난해 대비 근로자 수 증가, 신규 채용 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신청현황서식을 작성해 군청 투자경제과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sinphrae9877@korea.kr)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담양군 내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정부·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 탄압 멈춰야"

나주시의회, 규탄 성명서 발표
"출연금 계획대로 이행" 촉구

나주시의회는 16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는 16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이상만 의장과 이재남 의원, 김강정 의원, 한형철 의원, 김관용 의원, 김해원 의원, 박성은 의원, 홍영섭 의원등이 참석했다.

나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 1년여 만에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 요금이 된 전기료 인상과 한국전력의 자구안 마련을 핑계로 정부와 여당이 도가 지나친 생떼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2021년 3월 제정된 한전공대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설립 적법성을 핑계로 지난 3월에는 표적 감사를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을 언급해 출연금 재검토를 주장하는가 하면, 통폐합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면서 "청년의 꿈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정치 놀음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발언을 규탄하며 ▲청년의 꿈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담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정치 탄압을 당장 멈출 것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판매 정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할 것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에 대해 애초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건강 약속하는 '만보 걷기' 함께 해요"

장성, 생활 속 만보걷기 운영

장성군이 오는 7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생활 속 만보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의 걷기 실천율은 45.1%로, 전남 평균인 44.7%보다는 높았으나, 평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 실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장성군은 1일 1만 보 포함 1개월 누적 걸음 20만 보 또는 2개월 40만 보 목표를 달성한 군민 가운데 선착순 20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하루 최대 2만 보까지만 인정된다.

스마트폰이 있는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수시로 모집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 후 걸음 수가 기록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바로 시작하면 된다.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받고 기념품을 수령하면 된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좋은 운동"이라며 "생활 속 만보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걷기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함평 나산면 복지기동대, 위기가구 지원

함평군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독거 노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각종 잡동사니를 집에 쌓아놓고 사는 저장 강박증 의심 대상자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복지기동대원들은 집 안팎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생활폐기물과 각종 묵은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했다.

김판호 복지기동대장은 "어르신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화자 나산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복지기동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케이씨㈜,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

박주용 케이씨㈜ CEO 총괄 부사장을 비롯한 기업 임·직원 70여 명이 영암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200만원을 기탁했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중화학공업 기업인 ㈜케이씨는 대불산단 입주기업으로는 최초로 영암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박주용 CEO는 "대불산단 입주기업 최초로 영암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업 최초로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나서준 케이씨㈜의 박주용 CEO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장성 진원면 복지기동대, 안전바 설치

장성군 진원면 복지기동대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에 '안전바'를 설치했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진원면 복지기동대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어르신 가정을 확인해 10여 가구를 선정, 안전바 설치를 지원했다. 안전바는 현관, 화장실 등 어르신이 이동 중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벽면 손잡이다.

안전바 설치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복지기동대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화 복지기동대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